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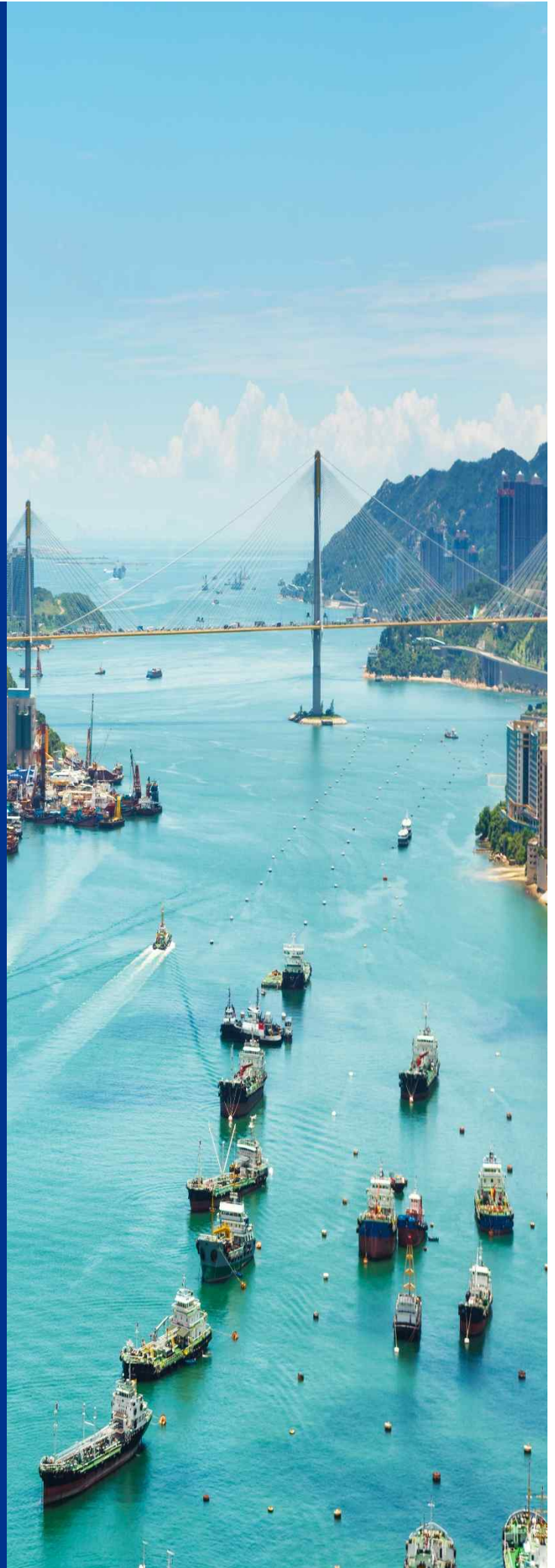
삼성 KPMG

ISSUE MONITOR

May 2016

삼성KPMG 경제연구원

제조업 투자의
패러다임 시프트,
뉴쇼어링
(New-shoring)



Contacts

The contacts at KPMG in connection
with this report are:

임두빈

책임연구원

Tel: +82 2 2112 7469

doobeenyim@kr.kpmg.com

Executive summary**3****서문**

- 우리나라 제조업,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최적 입지는 어디일까? 4

해외직접투자의 변동 **4**

- 해외직접투자(Outward Direct Investment; ODI) 4
- 우리나라 산업별 ODI 개관 5
- 전체산업의 ODI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투자금액 변동추이 6
- 제조업 ODI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투자금액 변동추이 8

뉴쇼어링의 필요성 **10**

- 중국으로부터의 이탈 10
- 제조업 ODI 투자목적 변화 11
- 불투명한 리쇼어링(Re-shoring) 환경 17

제조기업의 업종별 투자목적의 변화 **21**

- 제조업 ODI 상위 5개 업종 21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ODI 투자목적 변화 22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 ODI 투자목적 변화 23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의 ODI 투자목적 변화 24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의 ODI 투자목적 변화 25
- 1차 금속 제조업의 ODI 투자목적 변화 26

제조기업의 뉴쇼어링 전략 **27**

- 뉴쇼어링 전략의 전제조건 27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뉴쇼어링 전략 27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 뉴쇼어링 전략 29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의 뉴쇼어링 전략 30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의 뉴쇼어링 전략 31
- 1차 금속 제조업의 뉴쇼어링 전략 33
- 뉴쇼어링의 이행 34

본 보고서는 삼정KPMG 경제연구원(주)과 KPMG member firm 전문가들이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에 포함된 자료는 해당 분야 정보의 완전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거친 것은 아닙니다. 본 보고서는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개별 사안에 대한 해답을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며, 구체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보고서는 삼정KPMG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배포, 인용, 발간 복제할 수 없습니다.

Executive Summary

신흥국의 인건비 상승, 제품주기의 단축, 지적재산권의 유출 우려 등으로 인해 국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한 기업이 다시 국내로 복귀하는 리쇼어링(Re-shoring)이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투자환경 개선이 지연되고 있고, 정부의 '유턴기업지원법'이 크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내로의 무조건적인 회귀는 합리적인 전략방향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최근 리쇼어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과 우리나라는 산업구조, 에너지 환경에서도 근본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제조기업은 해외투자의 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의 입지를 고수할지, 국내로 회귀할지, 제3국으로 이동할지에 대한 뉴쇼어링(New-shoring) 전략이 필요하다.

Executive Summary

■ 뉴쇼어링(New-shoring)의 필요성

- **중국으로부터의 이탈**
 - ✓ 중국경제의 구조변화로 인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국으로의 ODI(Outward Direct Investment) 신고건수는 급격히 감소. 제조기업은 과거 세계의 공장이었던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투자처를 탐색할 필요
- **해외투자목적의 변화**
 - ✓ 제조업 해외투자의 주요목적이 과거 저임활용, 수출촉진에서 최근 선진기술도입, 현지시장진출로 변화
- **불투명한 리쇼어링 환경**
 - ✓ 원가관리의 중점이동, 제품주기 단축, 지적재산권 유출 우려, 국내 경제선순환 구조의 기대 등으로 인해 리쇼어링이 미국을 중심으로 조명받고 있지만, 미국은 에너지 가격, 첨단기술, 내수규모에서 국내 산업환경과 큰 차이가 있음

■ 제조기업의 뉴쇼어링 전략

- **자동차 업종:** 현지시장진출 목적의 투자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수출촉진과 저임활용 목적의 투자비중은 감소하는 추세
 - ✓ 현지시장진출 목적의 최적 투자지역으로 멕시코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멕시코는 글로벌 Supply Chain이 갖춰졌고, 집적이익의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
 - ✓ 저임활용 목적의 진출에서도 중국과 베트남의 비중이 대폭 축소되고 멕시코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
- **화학업종:** 현지시장진출 투자비중이 급격히 감소하고 선진기술도입 목적의 투자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
 - ✓ 화학업종은 자급률을 높이고 있는 중국, 저렴한 자원을 기반으로한 중동지역이 부상함에 따라 선진국형 고부가가치 사업으로의 전환이 시급한 과제이며, 일본으로의 투자를 주목할 필요
 - ✓ 주요 경쟁국의 급부상 등 일본 기업과 우리 기업들이 직면한 위기는 비슷하지만, 대응방식에는 상당한 차이를 보임. 우리 기업이 설비 증설에 집중한 반면 일본은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재편
- **전자업종:** 수출촉진과 선진기술도입 투자비중이 축소된 반면 현지시장진출, 저임활용 목적의 투자비중이 증가
 - ✓ 전자 업종이 투자대상으로 주목해야 할 지역은 단연 베트남. Intel, Microsoft, Canon 등 글로벌 전자기업들이 베트남에 생산공장을 집적하는 추세. 하위 벤더들의 시장진출 전망도 긍정적
 - ✓ 제3국진출 측면에서 보더라도 TPP, AEC 등으로 주요 시장과 연결돼 있어 베트남 내 생산제품이 무관세나 저관세로 미국·일본·유럽·아세안 국가 등으로 수출이 가능
- **기계업종:** 보호무역타개, 저임활용 목적의 해외투자 비중이 급감하고 현지시장진출 비중이 크게 증가
 - ✓ 기계 산업에서 투자대상 1순위는 여전히 중국. 과거 저임활용, 보호무역타개를 위한 해외투자의 주요국은 중국이었고, 여기서 감소된 투자액이 대부분 중국에서 현지시장진출 목적으로 바뀌어 재투자 되고 있음
 - ✓ 한편 최근 자동차, 전자의 전방산업 이동에 따라 멕시코와 베트남으로의 진출도 주목할 필요
- **1차 금속 업종:** 제3국 진출 목적의 투자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저임활용, 현지시장진출 목적의 비중이 증가
 - ✓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인해 철강 등 1차 금속 제조기업들은 원가절감과 내부적인 구조조정 등에 집중
 - ✓ 1차 금속 제조업에서 현지시장진출은 투자목적의 최우선 순위에 있지만 주요 투자 대상국이었던 중국, 인도, 미국으로의 투자금액이 대폭 축소된 반면 최근 칠레가 현지시장진출 목적의 투자에서 새롭게 주목

제조업 투자의 패러다임 시프트, 뉴쇼어링(New-shoring)

서문

“ **최소비용입지와 최대수요입지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입지를 고수할지, 국내로 회귀할지, 제3국으로 이동할지에 대한 근원적인 뉴쇼어링(New shoring) 전략이 필요한 시점** ”

우리나라 제조업,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최적 입지는 어디일까?

글로벌 경기둔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제조기업의 해외투자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최근 제조업 생산시설의 국내회귀를 의미하는 리쇼어링이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주목 받고 있으나, 우리나라 투자환경의 개선이 지연되고 있고, 정부의 ‘유턴기업지원법’이 크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내로의 무조건적인 회귀는 합리적 전략방향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미국과 우리나라는 산업구조, 에너지 환경에서도 기본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개별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땅한 투자처를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시점에서는 리쇼어링(Re-shoring)과 오프쇼어링(Off-shoring)을 넘어서는 뉴쇼어링(New-shoring)의 새로운 전략으로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하다. 기업에서는 최소비용입지 및 최대수요입지에 대한 변화를 감지하고 이에 따라 기존의 입지를 고수할지, 리쇼어링으로 국내 회귀할지, 또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제3국으로 이동할 지에 대한 근원적인 고민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기업의 뉴쇼어링 의사결정에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해외직접투자 통계의 시계열 자료를 분석하여 제조기업의 업종별 투자목적 변화와 그에 따른 적합투자지역 선정에 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해외직접투자의 변동

해외직접투자(Outward Direct Investment; ODI)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의미하는 오프쇼어링, 국내회귀를 의미하는 리쇼어링과 관련된 명확하고 객관적인 거시적 지표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전체적인 흐름과 변화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주요 자료로 해외직접투자(Outward Direct Investment; ODI) 통계가 있다.

해외직접투자는 해외 기업의 경영에 직접 참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자본, 경영능력, 기술, 인력 등의 생산요소를 해외로 이전시키는 기업활동을 의미한다. 반면 또 다른 해외투자방식인 해외간접투자는 단순한 자본투자를 통한 시세차익이나 배당수익만을 추구하고 있는 점에서, 기업 경영에 직접참가를 목적으로 해외에 자금이나 시설을 투자하는 해외 직접투자자와는 뚜렷하게 구별된다.

해외직접투자 통계는 기본적으로 당해 해외직접투자의 신고건수, 송금횟수, 신규투자된 법인수, 신고금액, 실제 투자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도별, 월별, 지역별, 국가별, 업종별, 투자목적별, 투자자규모별, 투자비율별, 지방자치단체별로 세부적인 파악이 가능하다.

제조업 투자의 패러다임 시프트, 뉴쇼어링(New-shoring)

<표 1> 해외투자통계의 기본항목별 내용

구 분		내 용
건수통계	신고건수	신규신고 외 증액신고건도 포함
	송금횟수	송금시마다 1건으로 처리하되, 동일 월내 2회 이상 송금 시에는 1건으로 처리
	신규법인수	현지법인에 대한 최초 송금건을 1건으로 처리
금액통계	신고금액	신고서 기준 투자예정금액으로 집계
	투자금액	송금보고서 기준 실제 투자(송금)된 금액으로 집계

Source: 한국수출입은행, 삼성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우리나라 산업별 ODI 개관

“ 해외직접투자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투자금액 모두 제조업이 아직까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2015년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 ODI 투자금액은 총 2,718억 달러이며, 산업별로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높고(26.8%), 다음으로 금융 및 보험업(19.0%), 부동산업 및 임대업(12.5%), 광업(12.4%), 도매 및 소매업(7.9%) 순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5년 ODI를 신고건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 8,898건으로 제조업(3,803건)이 가장 많고, 도매 및 소매업(1,604건),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605건), 건설업(466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406건)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한편 2015년 신규법인수는 2,901건으로 역시 제조업이 가장 많고(1,051건), 도매 및 소매업(670건),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218건), 숙박 및 음식점업(167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51건)이 타 산업 대비 신규투자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금액, 신고건수, 신규법인수로 볼 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ODI는 제조업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조업 투자의 패러다임 시프트, 뉴쇼어링(New-shoring)

<표 2> 2015년 산업별 ODI 현황

구 분	신고건수(건)	신규법인수(개)	투자금액(천달러)
제조업	3,803	1,051	7,280,123
금융 및 보험업	300	86	5,173,797
부동산업 및 임대업	356	102	3,396,415
광업	153	22	3,357,790
도매 및 소매업	1,604	670	2,141,443
건설업	466	145	1,694,912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96	26	1,574,153
숙박 및 음식점업	316	167	708,99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60	151	647,694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605	218	623,448
운수업	224	74	240,506
농업, 임업 및 어업	129	25	136,06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80	24	73,21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59	14	49,235
교육 서비스업	58	33	30,939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18	57	30,042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9	7	13,32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6	26	6,97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5	2	593
국제 및 외국기관	1	1	450
합계	8,898	2,901	27,180,110

Source: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Database, 삼정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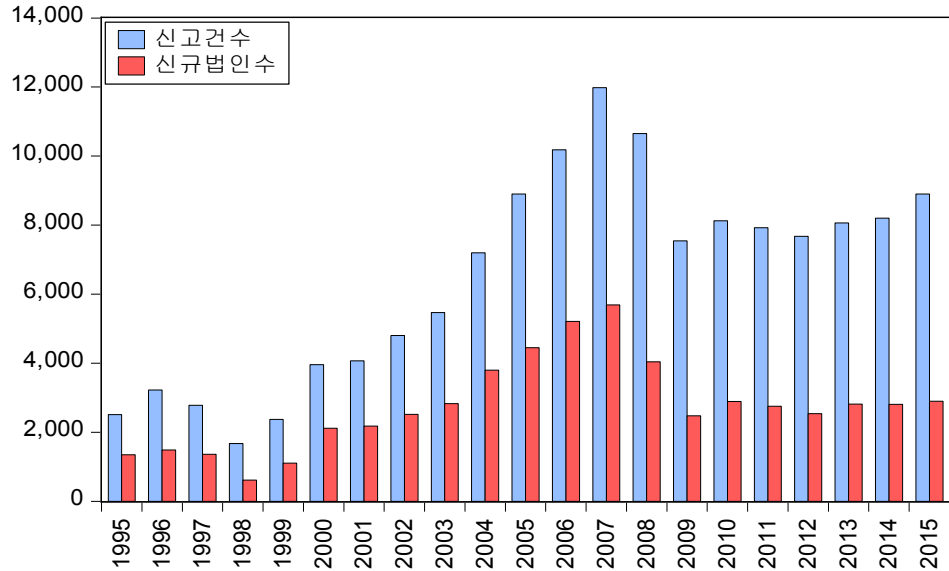
전체산업의 ODI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투자금액 변동추이

1995년부터 2015년까지 20년간의 신고건수와 신규법인수 변동추이를 보면, 1990년대는 완만하게 증가하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잠시 위축되었고 이후 급격한 속도로 증가하여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최고점을 기록했다. 그러나 금융위기 직후 신규건수와 신고법인수 모두 급감했고, 2015년 부터 다시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로 전환하고 있다.

2007년까지 당해 신규법인수가 전체신고건수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의 비중을 보였으나, 2007년 이후 신규법인수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였고, 2015년의 신규법인수는 전체 신고건수의 1/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신규법인수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신고건수가 적정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은 다수의 기업이 단기적인 ODI를 시행한다고 볼 수 있다.

제조업 투자의 패러다임 시프트, 뉴쇼어링(New-shoring)

[그림 1] 우리나라 ODI 신고건수 및 신규법인수 변동 추이(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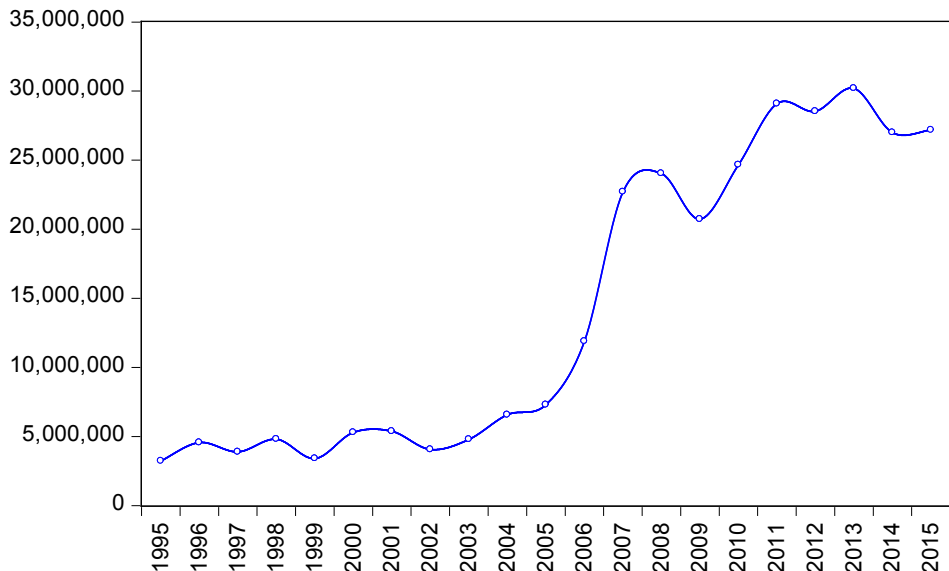


Source: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Database, 삼정KPMG 경제연구원

“ 금융 위기 이후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 ODI의 신고건수는 감소했으나 투자금액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 ”

한편 투자금액은 신고건수 및 신고법인수의 변동추이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때 잠시 위축되었으나, 이후 빠르게 회복하고 금융위기 이전보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4년 소폭으로 감소하였으나, 2015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신고건수가 감소하는데 반해 투자금액이 증가한다는 것은 과거에 비해 건수당 투자금액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2] 우리나라 ODI 금액 변동추이(천달러)



Source: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Database, 삼정KPMG 경제연구원

제조업 투자의 패러다임 시프트, 뉴쇼어링(New-sho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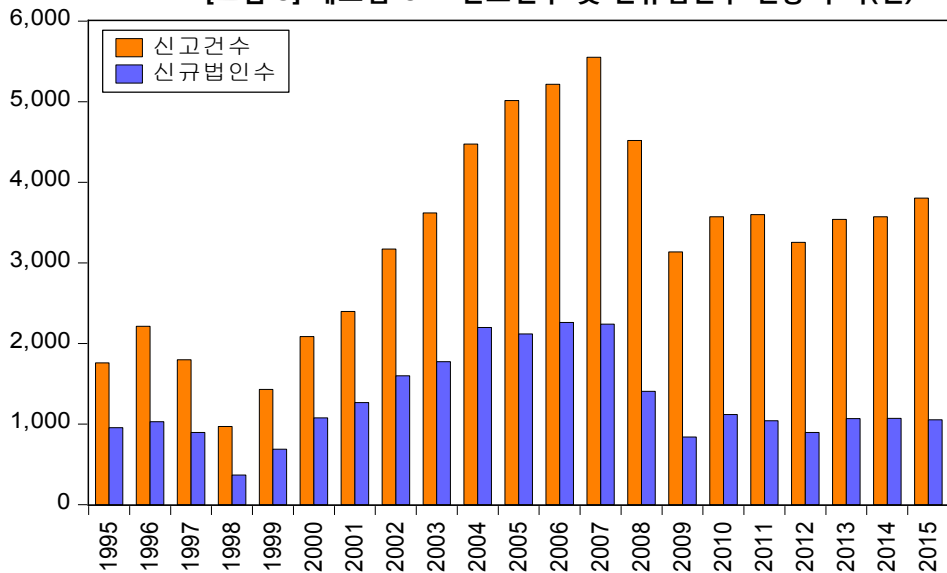
제조업 ODI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투자금액의 변동추이

제조업 ODI 신고건수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ODI흐름과 유사한 추이를 보이나,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변화와 신규법인수 변화에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이 관찰된다.

“
지난 20년간 전체 ODI에서 제조업의 비중은 크게 감소
”

먼저 1995년만 하더라도 전체 ODI 신고건수에서 제조업의 신고건수는 71.5%를 차지하였으나, 2015년 26.8%로 크게 감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15년 기준으로 전체산업에서의 신규법인수는 전체산업 신고건수의 1/3 수준인데 반해, 제조업 신규법인수의 경우 제조업 신고건수의 1/4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제조업에서의 신규 ODI가 타 산업에 비해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제조업 ODI 신고건수 및 신규법인수 변동 추이(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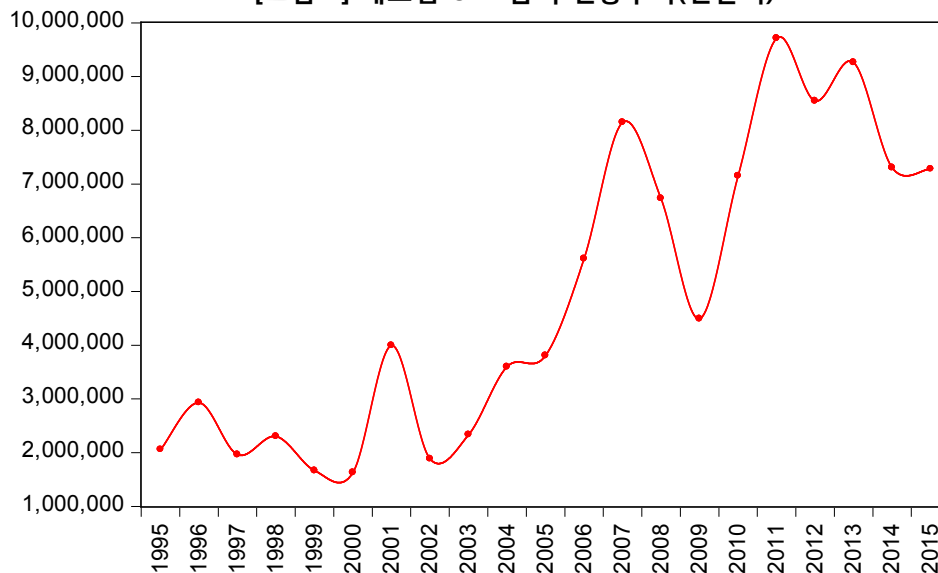
Source: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Database, 삼성KPMG 경제연구원

“
제조업의 ODI 금액은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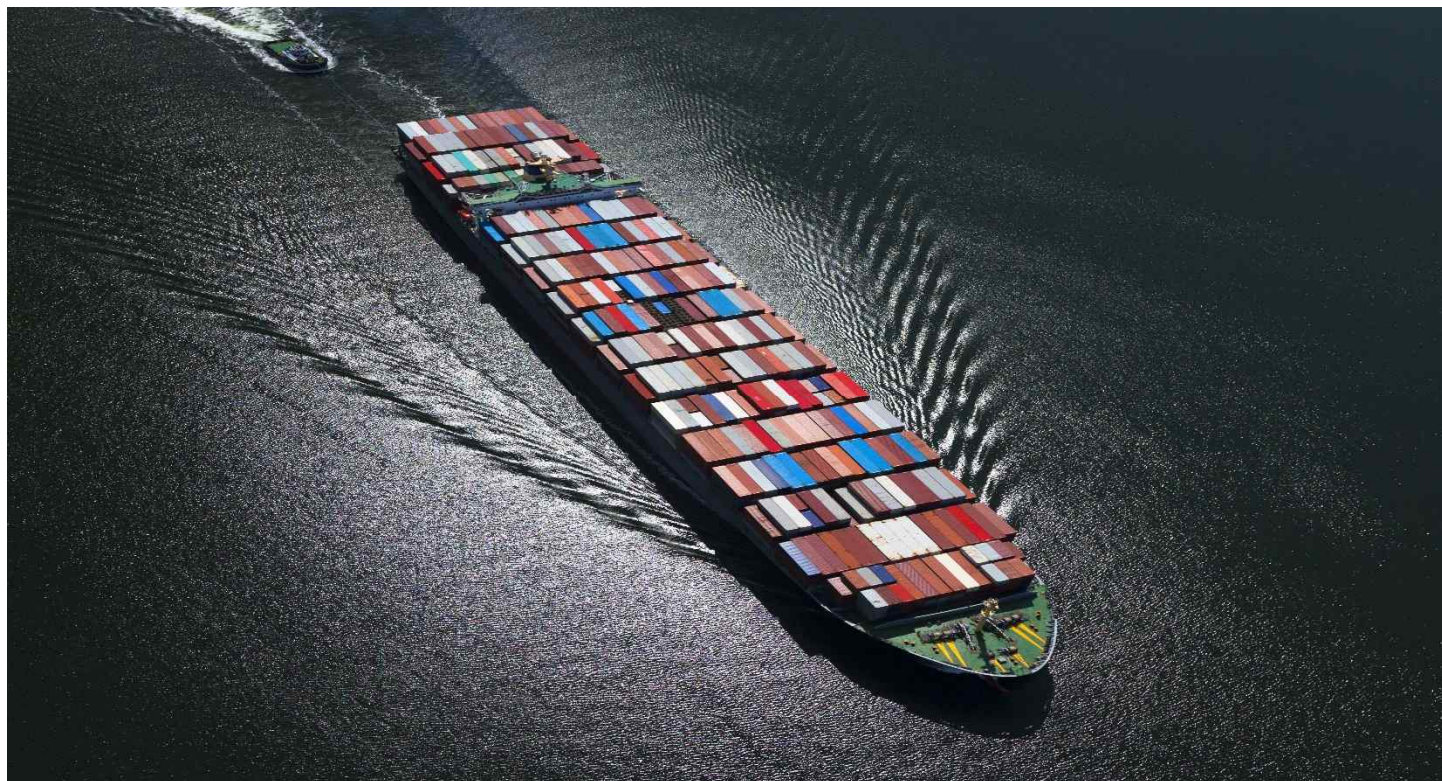
투자금액 변동에 있어서도 세부적으로 보면 전체산업의 변동과는 차이를 보인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전체산업은 빠르게 ODI 금액을 회복한 반면 제조업은 2000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 2003년 이후 증가하기 시작했다. 또한 2008년 금융위기 시기에 전체산업의 ODI 금액이 소폭 감소한 것과는 달리 제조업의 경우 절반 가까이 급감하게 된다. 이후 2013년까지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다가 2014년 다시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2015년에는 금융위기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제조업 투자의 패러다임 시프트, 뉴쇼어링(New shoring)

[그림 4] 제조업 ODI 금액 변동추이(천달러)



Source: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Database, 삼정KPMG 경제연구원



제조업 투자의 패러다임 시프트, 뉴쇼어링(New-shoring)

뉴쇼어링의 필요성

“ 중국으로부터의 이탈, 해외투자목적의 변화, 불투명한 리쇼어링 환경은 입지 선정에 있어 새로운 전략을 요구 ”

제조기업의 해외진출과 관련하여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이유로 중국으로의 투자환경 악화, 기존 해외투자목적의 변화, 불투명한 리쇼어링 환경을 들 수 있다.

[그림 5] 제조업 뉴쇼어링 필요성

중국으로부터의 이탈	• 세계의 공장이었던 중국 투자환경의 악화로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투자처를 탐색할 필요
해외투자목적의 변화	• 불필요한 목적의 해외투자를 철회하고, 변화된 투자목적에 맞는 새로운 입지를 모색할 시점
불투명한 리쇼어링여건	• 리쇼어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는 상이한 국내 에너지환경 및 산업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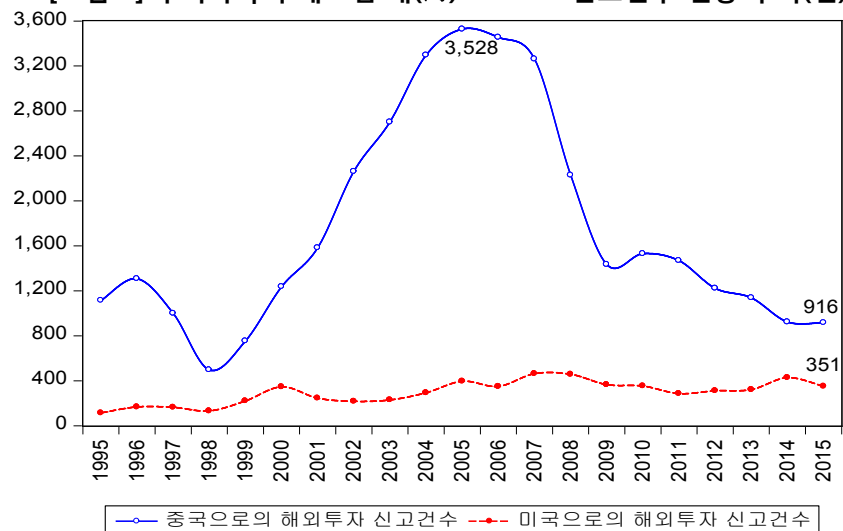
중국으로부터의 이탈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ODI의 감소는 중국으로부터의 이탈을 주요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중국으로의 제조업 ODI 신고건수는 2005년 3,528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하였고, 당해 전체 제조업 ODI 신고건수가 5,012건 임을 감안할 때 중국으로의 투자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국으로의 제조업 ODI 신고건수는 급격히 감소하여 2015년 916건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2015년 신고건수 기준으로 보면 2005년에 비해 중국의 비중이 45%로 급감했다. 2015년 대(對) 중국의 ODI 신고건수는 20년 전인 1995년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 제조업에서 2015년 중국으로의 ODI 신고건수는 20년 전 수준으로 대폭 축소 ”

[그림 6] 우리나라의 제조업 대(對) G2 ODI 신고건수 변동 추이(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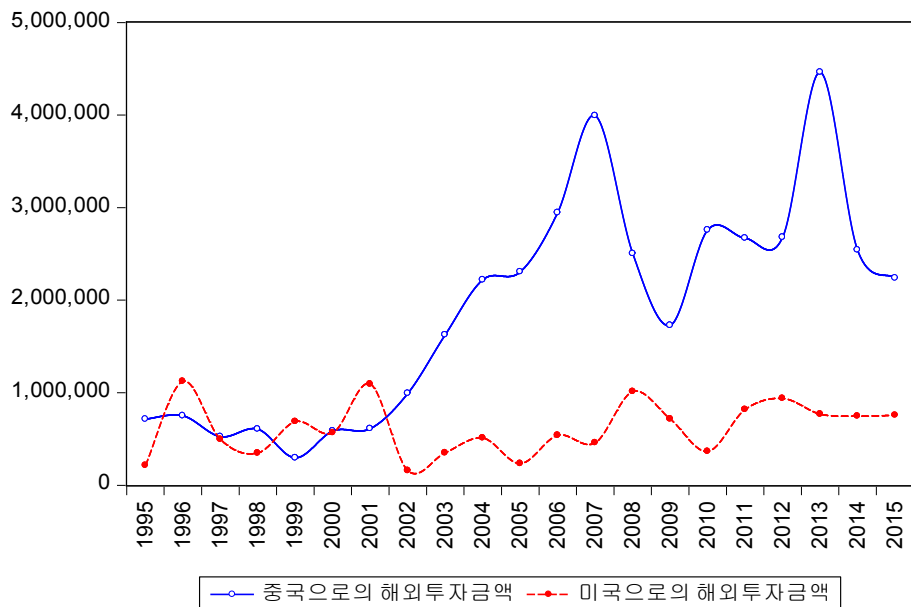


Source: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Database, 삼성KPMG 경제연구원

제조업 투자의 패러다임 시프트, 뉴쇼어링(New-shoring)

한편 2015년 중국으로의 ODI 투자금액도 지난 10년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 경제의 구조변화와 자국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강화, 인건비 격차 감소 등으로 중국에서의 ODI 효용이 실제 크게 감소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7] 우리나라의 제조업 대(對) G2 ODI 금액 변동 추이(천달러)



Source: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Database, 삼정KPMG 경제연구원

“ 중국으로부터의
자금이탈을 흡수할 새로운
투자처가 필요 ”

한편 중국으로부터의 이탈을 제 3국에서 온전히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조업 ODI 지표들이 하락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는 제3국에서의 투자여건이 과거 중국에 비해 미흡한 상황이거나, 대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 기업에서 해외 투자 유보 결정을 내리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기업은 제3국으로의 투자나 국내 투자라는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는 기존의 오프쇼어링과 리쇼어링이 아닌 뉴쇼어링이라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첫번째 이유이다.

제조업 ODI 투자목적 변화

2015년 제조업 ODI를 투자목적별로 구분해 보면 ‘현지시장진출’이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투자금액에서 모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투자금액 기준으로 ‘현지시장진출’은 62.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로 ‘수출촉진’(15.5%), ‘저임활용’(9.9%), ‘선진기술도입’(8.5%), ‘자원개발’(2.2%)이 뒤따르고 있다.

제조업 투자의 패러다임 시프트, 뉴쇼어링(New-shoring)

“저임활용, 수출촉진, 보호무역타개 목적의 신규진출 비중은 축소”

수출촉진과 저임활용목적은 신고건수 대비 신규법인수가 1/4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현지시장진출, 선진기술도입 목적에 비해 상대적으로 ODI의 신규진출이 정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 2015년 제조업 투자목적별 해외투자현황

투자목적	신고건수(건)	신규법인수(개)	투자금액(천달러)
현지시장진출	2,093	672	4,549,380
수출촉진	741	183	1,129,173
저임활용	721	135	717,259
선진기술도입	99	35	619,579
자원개발	53	9	160,053
제3국진출	81	16	64,284
보호무역타개	11	1	38,318
기타	3	0	576
원자재확보	1	0	1,500
합계	3,803	1,051	7,280,123

Source: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Database, 삼성KPMG 경제연구원

ODI의 투자목적에 대한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추이를 보면, 현지시장진출을 목적으로 제조기업이 해외투자를 한 신고건수와 신규법인수는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반면 투자금액은 2014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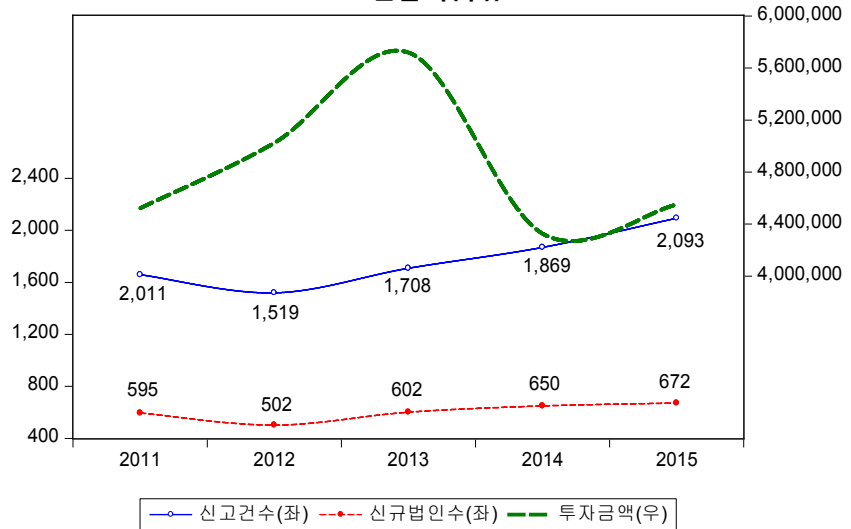
현지시장진출 목적의 해외직접투자에서 신규법인수의 증가율보다 신고건수의 증가율이 크다는 점은 현지시장진출 목적의 제조기업은 타 해외투자 목적에 비해 단기에 철수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현지시장진출 목적의 해외투자는 장기적 프로젝트로 접근해야 함을 의미한다.



제조업 투자의 패러다임 시프트, 뉴쇼어링(New-shoring)

“
현 지 시 장 진 출
목적의 투자금액은 2014년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신고건수와 신규법인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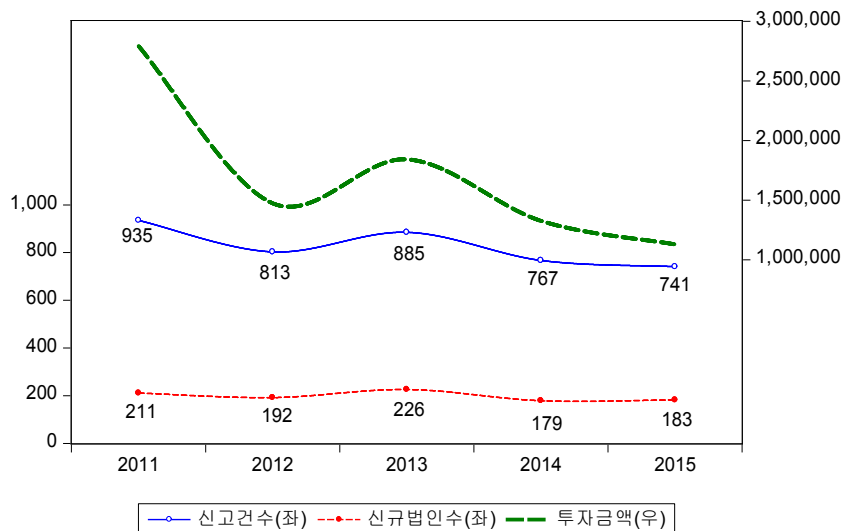
[그림 8] 현지시장진출목적 제조업 ODI 변동 추이(건수(좌), 천달러(우))



Source: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Database, 삼성KPMG 경제연구원

한편 수출촉진 목적에서 제조기업의 해외투자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투자금액은 2011년에 비해 2015년 모두 감소했다. 이는 2010년 이후 EU(28개국),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굵직한 FTA가 대거 발효되고 그 효과가 나타나면서, 제조기업에서 수출촉진 목적의 ODI에 대한 효용이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보호무역타개 목적의 ODI가 감소한 것도 동일한 이유가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9] 수출촉진목적 제조업 ODI 변동 추이(건수(좌), 천달러(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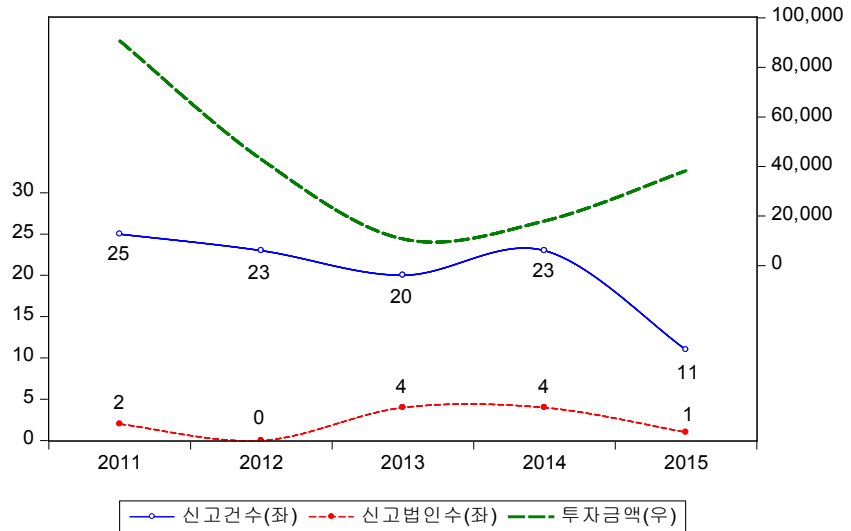


Source: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Database, 삼성KPMG 경제연구원

제조업 투자의 패러다임 시프트, 뉴쇼어링(New-shoring)

“ 2010년 이후 다수의 FTA가 대거 발효됨에 따라 수출촉진과 보호무역 타파의 ODI는 감소 ”

[그림 10] 보호무역타개목적 제조업 ODI 변동 추이(건수(좌), 천달러(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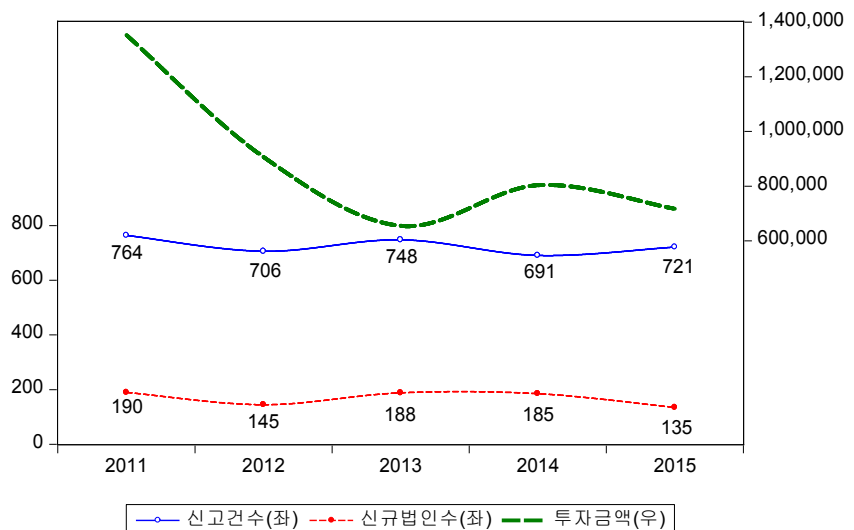


Source: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Database, 삼정KPMG 경제연구원

다만 최근의 보호무역타개 목적의 투자금액 증가는 중국에서 1차 금속 제조업의 보호무역과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된다. 저임활용 목적의 ODI도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다. 신흥국의 임금상승이 가파르고, 세계적으로 공장자동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에 비해 저임활용목적의 ODI가 비용절감 측면에서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11] 저임활용목적 제조업 ODI 변동 추이(건수(좌), 천달러(우))

“ 주요 신흥국의 임금상승과 공장자동화 확산으로 인해 저임활용의 효과가 점차 감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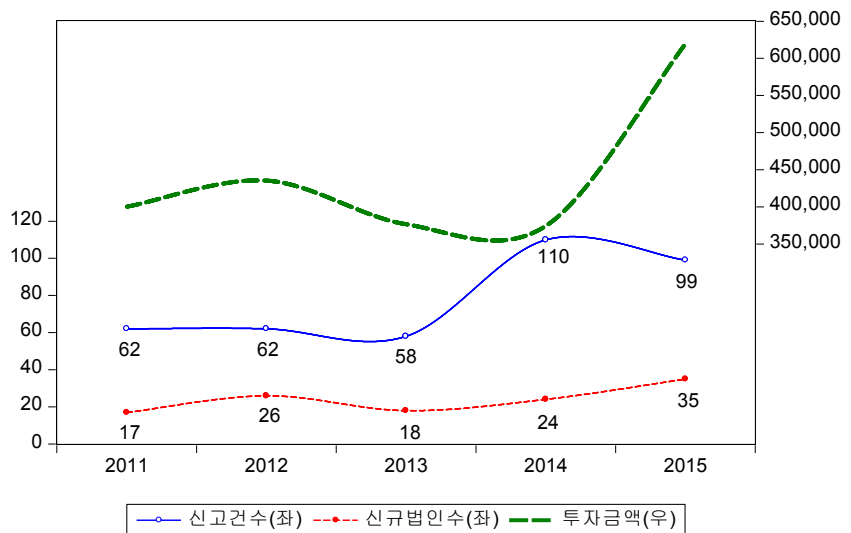
Source: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Database, 삼정KPMG 경제연구원

제조업 투자의 패러다임 시프트, 뉴쇼어링(New-shoring)

“ 선진기술도입 목적의 ODI는 투자금액과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모두 크게 증가하는 추세 ”

반면 선진기술도입 목적의 ODI는 2014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중국 등 신흥국의 양적 성장과 기술혁신 가속으로 인해 우리나라 제조기업의 부가가치가 하락하고, 국제경쟁력이 약화되면서, 기업측면에서 고부가가치로의 사업전환을 위해 해외 선진기술 도입 목적의 ODI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2] 선진기술도입목적 제조업 ODI 변동 추이(건수(좌), 천달러(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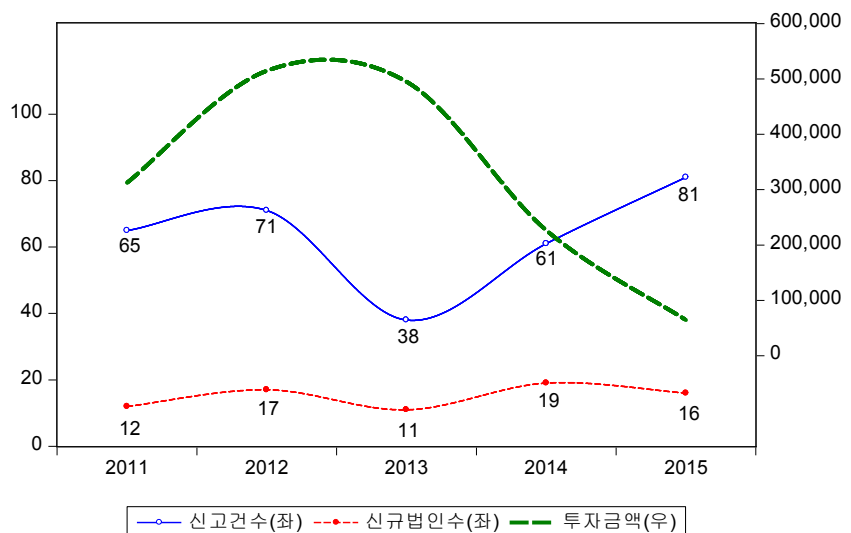


Source: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Database, 삼성KPMG 경제연구원

제3국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ODI의 경우 2013년 이후 신고건수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투자금액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13] 제3국진출목적 제조업 ODI 변동 추이(건수(좌), 천달러(우))

“ 제3국진출 목적의 투자금액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로의 신고건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 ”



Source: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Database, 삼성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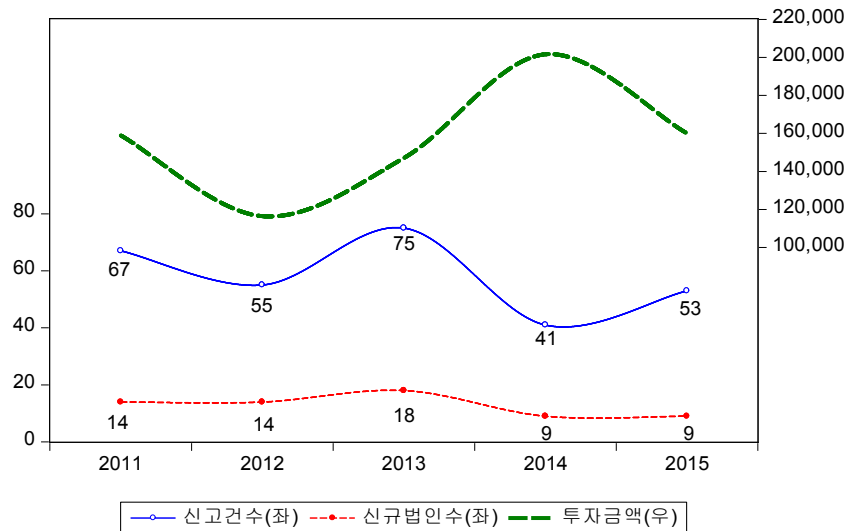
제조업 투자의 패러다임 시프트, 뉴쇼어링(New-shoring)

제3국 진출 목적의 ODI는 남미 시장 진출을 위해 브라질에 투자한 금액의 비중이 매우 높았으나, 최근 브라질의 경기침체와 정치불안으로 인해 기업들이 투자를 철회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고건수의 증가는 최근 3년내 동남아 시장과 TPP 체결로 인해 미국, 일본, 유럽 시장의 교두보를 확보한 베트남으로의 진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자원개발목적 ODI 변동 추이를 보면 민간 제조업에서는 2014년까지 자원개발을 위한 ODI의 투자금액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다. 그러나 최근 자원개발 투자금액의 큰 비중을 차지했던 콜롬비아, 페루 등 중남미 국가의 투자와 중국에 대한 투자가 급격하게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의 신규법인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림 14] 자원개발목적 제조업 ODI 변동 추이(건수(좌), 천달러(우))

“ 2014 년 이 후
자원개발과 관련된 중남미
국가로의 투자는 급격히
위축 ”



Source: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Database, 삼성KPMG 경제연구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제조기업에서 ODI 투자목적의 변화는 새로운 뉴쇼어링이 전략이 필요한 두번째 이유가 될 수 있다. 즉 현재시점에서 제조기업은 효율적인 ODI 자원배분을 위해 불필요한 목적의 ODI를 철회하고, 국내복귀 또는 변화된 투자목적에 맞는 제3국으로의 진출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제조업 투자의 패러다임 시프트, 뉴쇼어링(New-sho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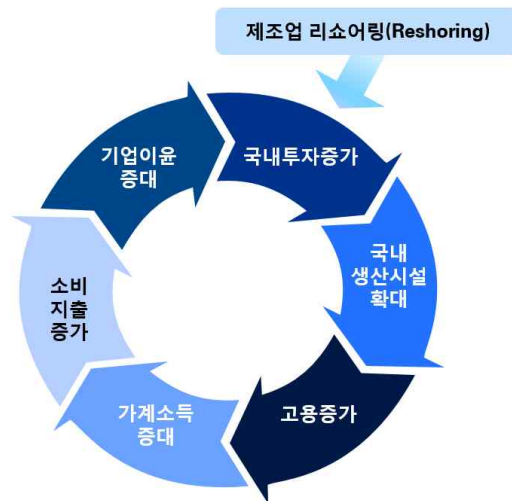
“ 금융 위기 이후
고용창출 중요성의 대두와
소비 위축은 제조업의
국내유지 중요성을 조명하는
되는 계기로 작용 ”

불투명한 리쇼어링(Re-shoring) 환경

리쇼어링(Re-shoring)은 비용 등을 이유로 해외에 나간 자국 기업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현상으로, 기업의 생산기지 해외이전을 뜻하는 오프쇼어링(Off-shoring)의 반대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리쇼어링은 ‘제조업의 본국회귀’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 국가의 고용창출 능력의 한계와 이에 따른 소비침체는 제조업에서 국내생산의 중요성을 조명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했다. 제조업의 국내회귀는 국내생산 증가로 이어지므로 기업의 설비투자가 확대된다. 설비투자 확대에 의한 생산증가로 노동력 확보가 필요해지므로, 고용이 확대되고 일반 가계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소비지출이 늘어나고, 경기가 더욱 활성화되는 경제순환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15] 제조업 국내회귀로 인한 경제순환 구조



Source: 삼성KPMG 경제연구원

한편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의 가파른 임금 상승, 해외 생산 시 기술유출 방지 및 품질관리를 위해 소모되는 비용 등으로 인해 국외생산 보다 국내생산의 비용이 적을 수 있다는 인식이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과거 저원가 생산지의 활용이 원가경쟁력 확보에는 도움이 되었으나, 가치사슬의 지역적 분리가 기업의 기능간 소통을 저해하고, 협력의 저하로 이어져 혁신역량 제고에 한계로 작동해 오고 있었다는 점도 리쇼어링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제조업 투자의 패러다임 시프트, 뉴쇼어링(New-shoring)

특히, 제조업의 서비스화로 인해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의 니즈가 제품주기 단축을 초래하고 있다. 제품의 개발과 생산간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내 본사의 기획 단계부터 생산과 출시의 기간을 단축하려는 유인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표 4> 리쇼어링의 주요 원인

1. 원가관리의 주요 항목 변화
2. Value Chain 간 협력을 통한 역량강화 필요성 증대
3. 고객 니즈 수시변화에 따른 제품주기 단축
4. 지적재산권 유출 우려
5. 자국(自國)정부의 정책지원

Source: 삼성KPMG 경제연구원

“ 미국의 글로벌 기업 중심으로 리쇼어링과 국내공장 신설이 진행중 ”

현재 제조업의 리쇼어링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제조업의 리쇼어링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극심한 내수 침체를 돌파하기 위해 서비스업에 집중된 미국의 경제체질을 제조업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구매력 증대를 도모하게 된다.

미국정부는 리쇼어링 유인책으로 법인세 상한선을 35%에서 28%로 낮추고 제조업체의 경우 25%의 특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반면, 오프쇼어링 기업에 대한 감세조치는 철회했다. 또한 미국에 공장을 이전할 경우 이전비용의 20%를 지원하고, 도로 보수, 교량 재건 등을 위한 인프라 확충계획(2014년, 3,020억 달러 규모)을 통해 제조업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 하에 실제 미국에서 글로벌 기업 중심으로 리쇼어링 및 국내공장 신설이 진행 중이다.

<표 5> 미국 글로벌 제조기업의 본국회귀 및 생산시설증설 사례

기업명	원생산처	내용	발표연도
Ford	멕시코	트럭 제조공장 이전	2011
GE	중국	세탁기, 냉장고, 히터공장 이전	2012
Google	국내신설	Nexus Q 제조공장 신설	2012
Lenovo	중국	컴퓨터 제조공장 이전	2012
GM	국내신설	조립공장 신설	2013
Otis	멕시코	엘리베이터 공장 이전	2013
Apple	중국	스마트폰 부품 직접생산	2013
Dow Chemical	국내신설	화학제품 생산공장 신설	2013
Chevron Philips	국내신설	에탄, 폴리에틸렌 가공 설비 신설	2013
Exxon Mobile	국내신설	에탄, 폴리에틸렌 가공 설비 신설	2014
Whirlpool	멕시코, 중국	세탁기 등 가전공장 이전	2014

Source: John A. Pearce II(2014), 한국은행(2014), 삼성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제조업 투자의 패러다임 시프트, 뉴쇼어링(New-shoring)

“ 미국은 산업구조와 에너지 환경, 내수 규모에서 우리나라와 큰 차이를 보임 ”

미국의 제조업 부흥에는 자국 기업의 국내 회귀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미국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반드시 리쇼어링이 해답이라고 볼 수 없다. 미국과 우리나라는 에너지 환경과 산업구조, 내수규모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유독 미국에서 리쇼어링이 활발한 이유와도 일맥 상통한다.

첫 번째로 미국은 셰일가스(셰일오일포함) 채굴에서 상용화된 경제성을 확보하여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에너지 비용을 확보했다. 전세계적으로 셰일 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국가는 다수 존재하지만 셰일가스를 경제성 있게 생산할 수 있는 국가는 아직까지 미국과 캐나다 외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원가 측면에서 볼 때,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소비가 많은 공장을 건설하기 가장 좋은 국가가 미국이 된 것이다.

두 번째로 미국의 혁신적인 첨단 기술력은 미국 제조기업의 본국회귀를 가능하게 했다. 미국은 표준 특허 등록수에서 압도적인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2014년에 이르러 2위 일본과의 격차도 1,000건 이상으로 벌어졌다. 특히 미국은 미래 유망산업 분야에서는 선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의 제조업 육성 정책은 과거 ‘세계의 공장’으로 불렸던 중국의 경우처럼, 범용제품의 대량생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 실제 오바마 행정부의 제조업 혁신 정책은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즉, IT 기술과 융합한 혁신적인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하려는 것이다.

<표 6> 국제 표준화기구(ISO, IEC, ITU) 표준특허 등록 수(건)

순위	국가	2012년	2013년	2014년
1	미국	2,774	2,713	3,047
2	일본	1,789	1,859	1,972
3	핀란드	1,010	1,401	1,847
4	프랑스	816	1,309	1,587
5	독일	462	474	531

Source: 특허청(2015), 삼성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ttee),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세 번째로 2016년 1월 기준으로 미국의 인구는 3억 2,137만 명으로 중국, 인도의 뒤를 잇는 세계 3위의 인구 대국이며 일반국민들의 구매력도 높아 내수시장이 탄탄하다. 즉, 미국은 내수 성장으로도 경제순환이 가능한 경제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다르게 석유와 천연가스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아직까지 범용제품의 생산 규모가 크며, 내수기반이 취약해 대외환경 변화에 민감한 산업 구조를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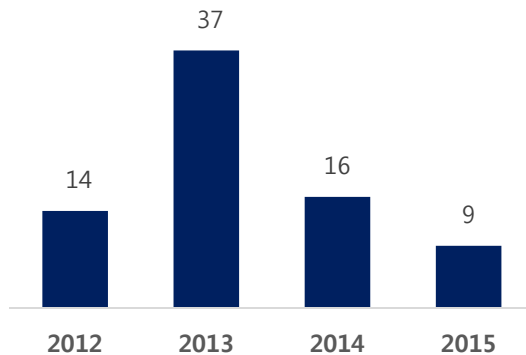
제조업 투자의 패러다임 시프트, 뉴쇼어링(New-shoring)

“ 2015년 한국으로
회귀한 기업은 9곳에 불과 ”

한편 우리나라 정부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여건 조성을 위해 2013년 ‘유턴기업지원법’을 제정 완료해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유턴기업지원법은 한국으로 돌아온 기업들이 일정 요건에 맞춰 유턴기업으로 지정되면 법인세·소득세는 최대 7년간 50~100%를 감면받고, 자본재 수입에 대한 관세를 최대 5년간 50~100% 감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2015년 말까지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76개로, 2013년 37개를 정점으로 2015년에는 9개까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2015)에 따르면 국외 진출 기업 중 국내에 복귀할 희망을 보이는 기업은 2013년 이후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6] 국내 유턴 기업수 변동 추이(개)



Source: 산업통상자원부(2015),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전략적으로 추진했던 유턴지원기업법이 실효성을 발휘 못하는 이유는 ‘비수도권으로만 공장 이전’, ‘해외에서 완전 철수한 기업에 한해서만 100% 지원’ 등 법과 현실의 괴리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으나, 앞에서 언급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적 측면이 가장 큰 이유일 것으로 판단된다.

리쇼어링이 글로벌 트렌드라는 주장이 있으나, 사실상 시장 조건이 적합한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까지 리쇼어링의 효과에 대해서는 탐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도적 지원으로 인한 리쇼어링은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제3국으로의 이동 등을 포괄하는 뉴쇼어링 전략이 필요한 세번째 이유이다.

제조업 투자의 패러다임 시프트, 뉴쇼어링(New-shoring)

제조기업의 업종별 투자목적 변화

제조업 ODI 상위 5개 업종

제조기업에게 맞춤형 뉴쇼어링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각 기업이 속한 업종군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각 업종별로 투자목적의 변화가 상이할 것이기 때문이다. 2015년 제조업에서 투자금액 기준으로 ODI 상위 5개 업종을 보면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ODI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뒤를 전자, 화학, 기계, 1차 금속 제조업이 뒤따르고 있다.

<표 7> 2015년 제조업 세부업종별 ODI 현황

제조업 세부업종별	신고건수(건)	신규법인수(개)	투자금액(천달러)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423	113	1,769,46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633	183	1,162,07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245	85	727,511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21	136	577,047
1차 금속 제조업	125	29	543,388
전기장비 제조업	267	69	504,9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305	63	334,10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98	69	288,360
식료품 제조업	142	28	260,45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1	26	221,71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225	59	169,956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53	19	134,29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74	56	117,948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8	7	115,908
기타 제품 제조업	104	38	95,018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135	34	94,616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42	8	40,618
음료 제조업	4	2	35,776
가구 제조업	29	9	24,792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0	3	22,320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32	7	21,60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21	4	15,33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5	4	2,032
담배 제조업	1	0	878
합계	3,803	1,051	7,280,123

Source: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Database, 삼성KPMG 경제연구원

제조업 투자의 패러다임 시프트, 뉴쇼어링(New-shoring)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ODI 투자목적 변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ODI의 가장 큰 변화는 전체 투자금액이 2011년 11억 1,933만 달러에서 2015년 17억 6,946만 달러로 60% 이상 증가한 측면도 있으나, 저임활용과 수출촉진 및 선진기술도입 목적의 투자비중이 축소된 반면 현지시장진출 목적의 해외투자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는 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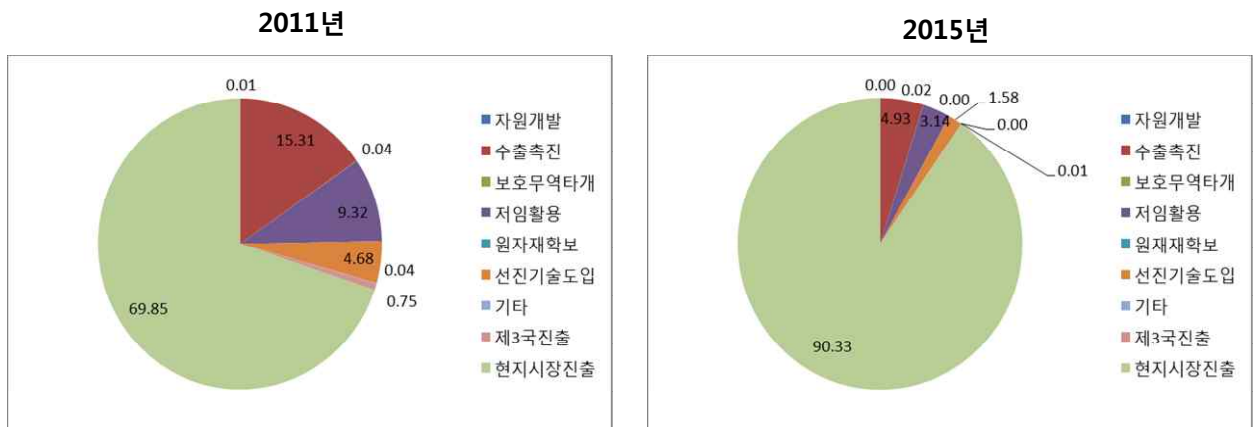
“ 자동차 업종은
현지시장진출 비중이 크게
증가한 반면 수출촉진과
저임활용 목적의 비중은
감소 ”

2011년 자동차 업종에서 저임활용 목적의 해외투자는 주로 중국과 베트남에서 이루어 졌는데, 2015년 두국가에서의 저임활용목적 투자금액이 8,798만 달러에서 3,780만 달러로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기술도입목적의 ODI 변화를 보면, 2011년 캐나다, 폴란드, 브라질에 투자된 금액이 2015년 대부분 철회되었으나, 2011년에 투자가 전무했던 독일로의 진출이 2015년에 2,735만 달러로 크게 증가 했다. 이는 2015년 선진기술도입 목적 투자진출의 98% 비중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자동차 업종에서 선진기술도입 목적의 절대 투자금액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반면 현지시장진출의 투자금액은 크게 증가했는데, 2011년에 브라질(1위, 3억 7,447만 달러)과 중국(2위, 2억 8,767만 달러)에 집중된 금액이 2014년 부터 멕시코와 중국으로 재편되고 있다. 특히 2015년에 멕시코(1위, 7억 5,189만 달러)는 처음으로 중국(2위, 5억 6,986만 달러) 을 제치게 된다. 중국은 여전히 자동차 업종에서 현지시장진출 목적의 중요한 투자 시장이나, 멕시코의 급부상이 가장 눈 여겨볼 점으로 사료된다. 멕시코 현지의 자동차 판매량도 증가하는 추세이나, 멕시코 내 자동차 수출의 약 80%가 북미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미국의 경제 회복과 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라 해당지역의 자동차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1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ODI 목적 비중 변화



Source: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Database, 삼성KPMG 경제연구원

제조업 투자의 패러다임 시프트, 뉴쇼어링(New-shoring)

“화학업종은 현지시장 진출 투자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고 선진기술 도입 목적의 투자 비중이 크게 증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 ODI 투자목적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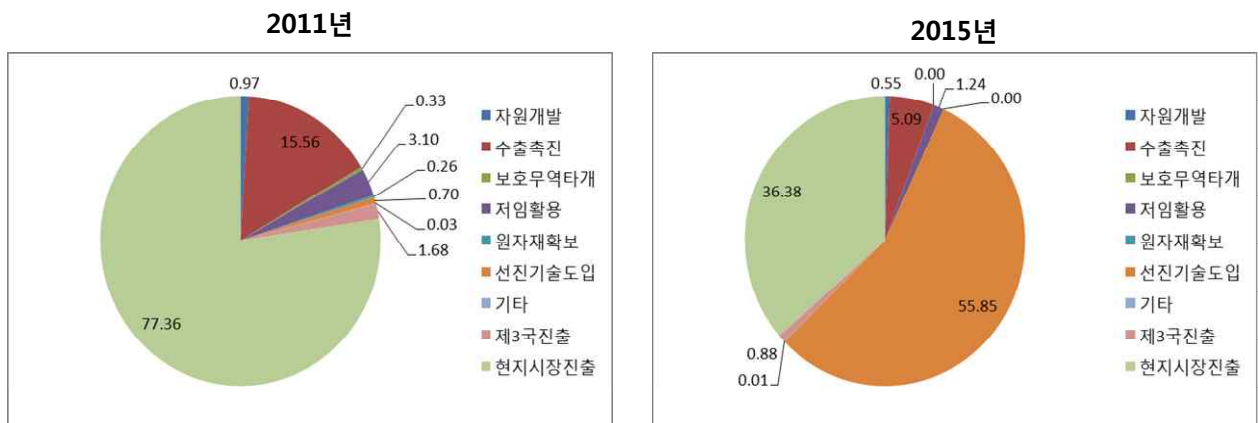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 ODI 투자금액은 2011년 5억 7,777만 달러에서 2015년 7억 2,751만 달러로 증가했다. 2011년과 2015년을 비교할 때, 화학업종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현지시장진출 목적의 ODI 투자액 비중이 77.36%에서 36.38%로 대폭 축소된 반면 선진기술도입 목적의 ODI 투자액 비중은 0.70%에서 55.85%로 대폭 증가한 것이다.

현지시장진출 목적의 ODI 투자금액은 2011년 4억 4,694만 달러에서 2015년 2억 6,470만 달러로 대폭 축소되었는데, 주된 이유는 중국, 싱가포르와 사우디아라비아를 대상으로 한 투자가 급감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2011년 싱가포르에 현지시장진출 목적으로 투자된 금액은 1억 2,126만 달러로 중국(1억 4,322만 달러)에 이어 2위를 기록하였으나, 2015년에는 싱가포르에 대한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KOTRA(2015)에서는 싱가포르에서 전력이나 증기와 같은 에너지 관련 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을 ODI 철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반면 2011년 405만 달러에 불과했던 선진기술도입을 위한 ODI 투자액이 2015년 4억 632만 달러로 100배 이상 증가했다. 선진기술도입 목적으로 일본에 투자된 금액이 3억 1,682만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보였으며, 미국이 8,850만 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화학업종에서 ODI 투자목적의 급격한 변화는 중국과 중동지역의 부상에 따라 우리나라 범용제품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상황에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 보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림 1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 ODI 목적 비중 변화



Source: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Database, 삼성KPMG 경제연구원

제조업 투자의 패러다임 시프트, 뉴쇼어링(New-shoring)

“ 전자업종은 수출촉진과 선진기술도입 비중이 축소된 반면 현지시장진출, 저임활용의 비중이 증가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의 ODI 투자목적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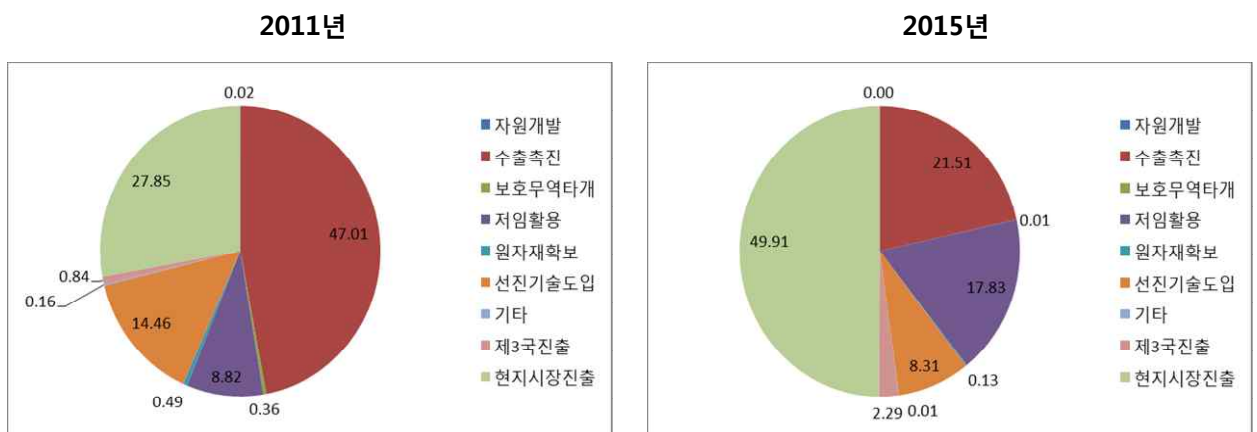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의 경우 2011년 20억 5,505만 달러에 달하던 ODI가 2015년 11억 6,207만 달러로 대폭 축소되었다. 투자목적의 비중별로 보면 2011년 27.85%의 비중을 차지하던 현지시장진출이 2015년 49.91%로 크게 증가하였고, 저임활용 비중도 8.82%에서 17.83%로 증가했다. 반면 수출촉진과 선진기술도입 목적의 투자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촉진목적의 급격한 감소는 아일랜드에 투자된 자금의 회수가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수출촉진목적으로 아일랜드에 투자된 6억 8,750만 달러의 금액이 2015년에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아일랜드는 금융위기 이후 파격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아일랜드의 더블 아이리시(Double Irish) 제도가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에 악용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 왔다. 더블 아이리시란 다국적 기업이 아일랜드에 해외 총괄법인을 세운 뒤 자회사의 로열티 명목으로 모은 수익을 조세피난처로 이전해 납세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이다. 2014년 아일랜드는 역외 더블 아이리시 제도를 폐기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내 IT 기업의 투자 철수에는 이러한 이면도 일정부분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저임활용 목적의 경우 베트남으로의 투자가 매우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1년 저임활용 목적 1위의 중국투자가 2015년에 절반 이하로 축소된 반면, 베트남의 경우 저임활용 목적의 투자가 4배 이상 증가하였다.

현지시장진출 목적을 보면 중국으로의 투자는 2011년 4억 9,080만 달러에서 2015년 3억 7,544만 달러로 감소하였으나, 베트남은 989만 달러에서 1억 2,312만 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는 Intel, Microsoft 등 글로벌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에 따라 베트남이 새로운 전자제품 생산 메카로 부상하고 있음을 뜻한다.

[그림 19]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의 ODI 목적 비중 변화



Source: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Database, 삼성KPMG 경제연구원

제조업 투자의 패러다임 시프트, 뉴쇼어링(New-shoring)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의 ODI 투자목적 변화

“기계 업종은 저임
활용과 보호무역타개 목적의
비중이 급감하고 현지시장
진출 비중은 크게 증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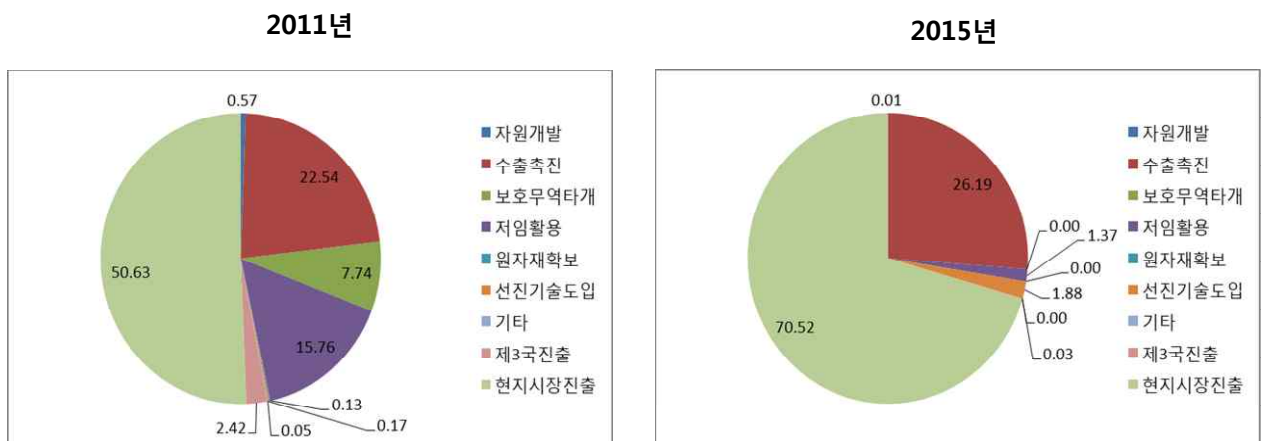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의 ODI 투자금액은 2011년 4억 2,398만 달러에서 2015년 5억 7,704만 달러로 증가했다. 기계장비 업종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저임활용과 보호무역타개 목적의 투자비중이 현저히 감소한 반면, 현지시장진출 목적의 투자비중은 크게 증가한 점이다.

특히 저임활용 목적으로 2011년 중국에 투자된 금액은 6,309만 달러였으나, 2015년 116만 달러로 급감했다. 또한 한국-중국 FTA 발효로 인해 중국을 중심으로 전개된 보호무역타개 목적의 ODI가 2015년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현지시장진출 목적의 ODI는 중국(1억 4,462만 달러)과 독일(9,539만 달러)이 1, 2위를 달리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투자금액에서 전년 대비 두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한편 2011년과 2015년 현지시장진출 목적과 관련된 ODI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전방산업의 이동에 따른 브라질, 베트남, 멕시코 시장의 급부상이다. 실제로 기계장비업종에서 현지시장진출 목적의 ODI 투자는 2011년 중국과 독일 미국의 3강 체제였으나, 2015년에는 브라질(8,670만 달러), 베트남(3,349만 달러), 멕시코(1,864만 달러)로 다변화 되는 추세이다.

[그림 20]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의 ODI 목적 비중 변화



Source: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Database, 삼성KPMG 경제연구원

제조업 투자의 패러다임 시프트, 뉴쇼어링(New-shoring)

1차 금속 제조업의 ODI 투자목적 변화

1차 금속 제조업의 ODI 투자금액은 2011년 18억 9,238만 달러에서 2015년 5억 4,338만 달러로 타 업종과 비교할 때 매우 큰 폭으로 감소했다. 철강을 비롯한 1차 금속 제조업의 해외 투자처가 마땅치 않고 시장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 1차 금속 업종의 경우 제3국 진출 목적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저임활용, 현지시장 진출 목적의 비중은 증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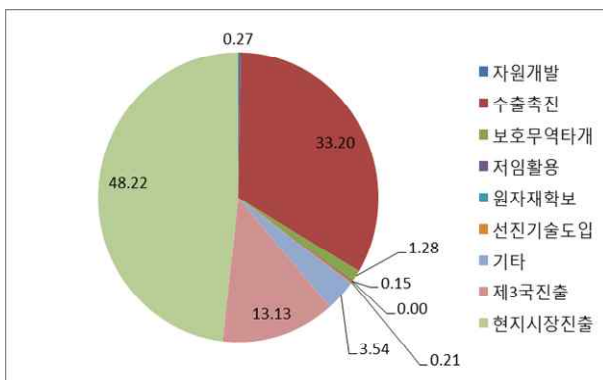
1차 금속업종에서 저임활용 목적의 투자비중이 증가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1년에는 저임활용 목적의 투자가 292만 달러에 그친 반면, 2015년에는 3,196만 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저임활용 목적과 관련된 투자의 90% 이상이 베트남(3,011만 달러)에 집중되어 있다. 1차 금속업계의 불황을 인건비 등 원가조정 측면에서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 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저임활용 목적의 투자는 임금 상승과 공장자동화 진행에 따라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제3국 진출 목적의 ODI 가 감소한 이유는 남미 시장을 타겟으로 한 브라질에서의 철수가 주요 원인이다. 철강산업의 공급과잉으로 철광석 가격이 급락하면서 세계 최대 철광석 생산지인 브라질의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다. 실제 2011년 제3국 진출 목적으로 1차 금속 제조업에서 브라질에 투자된 금액은 2억 4,847만 달러에 이르렀으나, 2014년 1억 8,009만 달러로 감소하였고, 2015년에는 투자금이 완전 철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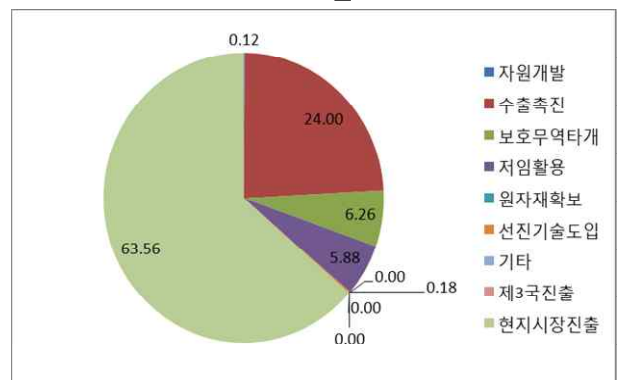
현지시장진출 목적의 투자도 투자목적 내 비중은 증가하였으나, 절대금액은 2011년 9억 1,243만 달러에서 2015년 3억 4,536만 달러로 1/3수준으로 감소했다. 특히 2011년 4억 9,177만 달러로 압도적인 1위 투자처였던 인도네시아 시장에서의 철수가 두드러졌다. 반면 중국시장에 대한 투자가 2,485만 달러에서 1억 2,854만 달러로 증가했다.

[그림 21] 1차 금속 제조업의 ODI 목적 비중 변화

2011년



2015년



Source: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Database, 삼성KPMG 경제연구원

제조업 투자의 패러다임 시프트, 뉴쇼어링(New-shoring)

제조기업의 뉴쇼어링 전략

“**업종별로 변화하는 투자목적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각 투자목적에 맞는 지역을 선정해야**”

뉴쇼어링 전략의 전제조건

제조기업이 뉴쇼어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업종별로 변화하는 시장의 트렌드를 파악해야 한다. 즉, 해당 기업이 속한 업종에서, 과거와는 바뀐 최근의 ODI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해당업종의 최근 주요과제는 선진기술 도입인데, 저임활용 목적의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기업이 스스로 원하는 투자목적에 대해 최적의 지역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업종별로 최근의 전체적인 목적변화는 물론 선행되어야 하지만, 개별기업의 사정과 목표에 따라 각자의 해외투자목적이 다를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고,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투자목적에 따른 최적지역을 선정하는 것은 여전히 개별기업에게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하여, 제조기업의 업종별로 투자목적의 우선순위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각 투자목적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투자지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뉴쇼어링 전략

자동차 업종에서는 현지시장진출을 위한 해외투자가 매우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내수를 기반으로 성장한 자동차 업체가 점차 글로벌 기업으로 확장되면서, 해외시장은 내수를 넘어서는 주요 시장으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 현지시장진출 목적의 해외투자로 주목해야 할 국가는 멕시코이다. 과거 브라질과 중국에서 최근 멕시코로의 이동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셰일붐으로 인한 미국의 에너지가격 하락으로 인해 당분간 북미시장의 자동차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자동차 업종의 최적 투자지역으로 멕시코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멕시코는 글로벌 Supply Chain이 갖춰졌고, 집적이익의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저임활용 목적과 관련한 투자에서도 멕시코는 새롭게 부상하는 지역이다. 과거 자동차 업계는 저임활용을 위해 중국과 베트남에 대부분 진출하였으나, 최근 중국과 베트남의 비중이 대폭 축소되고 멕시코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수출촉진 목적과 보호무역타개를 위한 투자지역으로는 중국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2014년 타결된 중국과의 FTA에서 중국 정부는 자동차를 초민감 품목에 포함시켜 양허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는 자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제조업 투자의 패러다임 시프트, 뉴쇼어링(New-shoring)

“ 자동차 업종에서
현지시장진출과 저임활용
투자는 멕시코, 수출촉진
투자는 중국을 주목해야 ”

중국의 인구와 경제성장을 고려할 때 중국은 매력적인 시장인 것이 자명하며,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가 중국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수출촉진과 보호무역타개의 목적에 따른 해외투자가 필요하다.

2011년까지만 하더라도 브라질, 폴란드에 집중된 선진기술도입 목적의 ODI가 최근 독일로 급격히 선회하고 있다. 한국과 EU간 FTA 발효로 인해 자동차 부품, 중대형 자동차와 관련해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독일 자동차 시장이 단계적으로 개방되면서 자동차 업계에서 독일 시장으로의 진출이 과거보다 수월해진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제3국 진출 목적의 ODI는 자동차 업종의 투자목적에서 가장 후순위에 있다. 2011년에는 우즈베키스탄을 거점으로 투자가 가장 높게 이루어졌으나, 최근 그 중심축이 동남아를 포괄할 수 있는 베트남으로 이동 중에 있다.

[그림 22] 자동차 업종의 ODI 투자목적 우선순위와 투자목적별 적합지역



Source: 삼성KPMG 경제연구원
주: 괄호안의 숫자는 투자목적의 우선순위를 의미



제조업 투자의 패러다임 시프트, 뉴쇼어링(New-shoring)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 뉴쇼어링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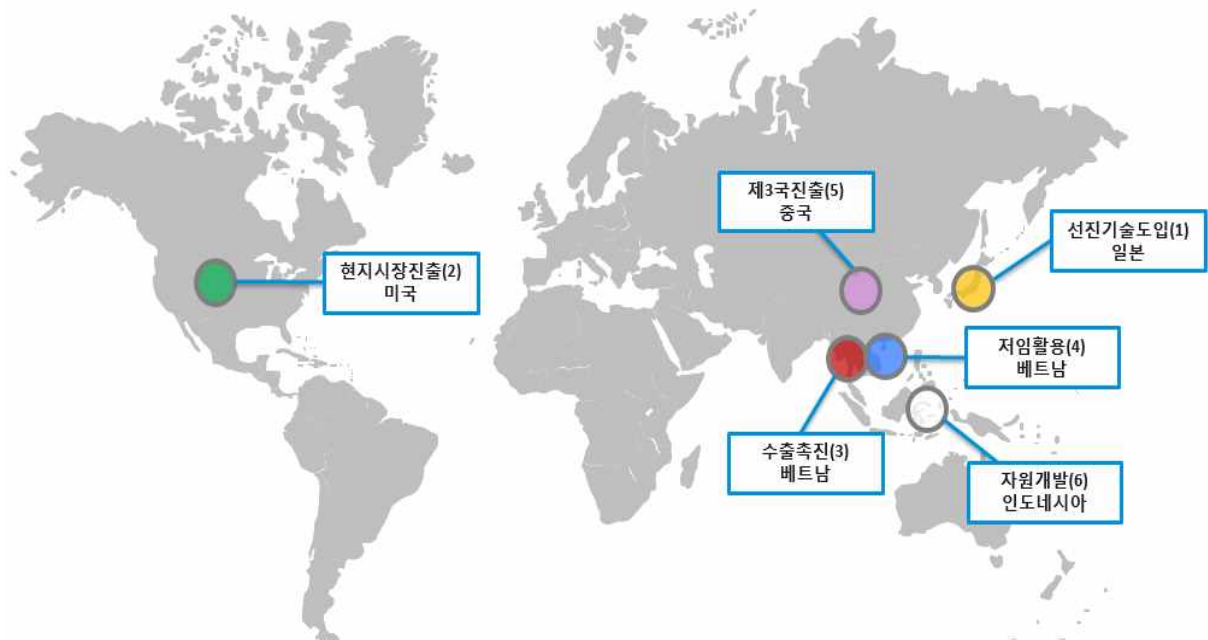
“화학업종은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사업 전환 필요, 선진기술도입을 위해서는 일본을 주목”

화학 업종의 경우 수요를 기반으로 자급률을 높이고 있는 중국, 저렴한 자원을 기반으로 한 중동 지역이 부상함에 따라 우리나라 범용화학제품의 경쟁력과 수익성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화학 업계는 선진국형 고부가가치 사업으로의 전환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는 상황이다.

최근 화학 업종에서 ODI 변화를 보면 현지시장진출 목적의 중국,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로의 투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선진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2015년 선진기술도입 목적의 ODI가 현지시장진출 목적의 ODI를 넘어섰다.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러한 트렌드는 지속될 전망이다.

선진기술도입 목적의 ODI로 최근 주목해야 할 국가는 일본이다. 글로벌 경제 상황과 주요 경쟁국의 급부상 등 일본 기업과 우리 기업들이 직면한 위기는 비슷하지만, 대응방식에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우리 기업이 생산설비 증설에 집중한 반면 일본은 연구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했다.

[그림 23] 화학 업종의 ODI 투자목적 우선순위와 투자목적별 적합지역



Source: 삼성KPMG 경제연구원
주: 괄호안의 숫자는 투자목적의 우선순위를 의미

제조업 투자의 패러다임 시프트, 뉴쇼어링(New-shoring)

2014년까지 선진기술도입 목적의 해외진출은 미국의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했으나, 2015년에는 미국의 비중이 상당히 축소되고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와 유사한 일본으로의 진출 비중이 77%로 크게 증가했다.

투자목적 내 비중은 크게 감소하였으나, 현지시장진출목적의 ODI는 여전히 화학 업종에서 2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개별기업이 현지시장진출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주목해야 할 국가로 미국을 꼽을 수 있다. 미국은 화학제품의 원재료가 되는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이 낮고, 미국 기업의 리쇼어링으로 인해 화학제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지시장진출 목적에 한해서 볼 때 중국, 중동 지역으로의 투자는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최근 미국으로의 투자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베트남의 경우 전자 제품에 들어가는 화학소재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수출촉진 목적의 진출을 고려해 볼만 하며, 저임활용 측면에서도 중국으로의 투자가 크게 감소한 반면 베트남으로의 투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의 뉴쇼어링 전략

“전자업종은 현지 시장 진출, 저임 활용, 제3국 진출 목적에서 베트남으로 역량이 집중되고 있음”

전자 업종의 경우 ODI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상황이다. 투자목적의 최우선순위는 수출촉진에서 현지시장진출로 전환되었고, 저임활용 목적의 ODI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반면 선진기술도입 목적의 해외투자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전자 업종이 투자대상으로 주목해야 할 지역은 단연 베트남이다. 자동차 역량의 역량이 멕시코에 집중되고 있는 것처럼, 최근 전자 업종의 역량은 베트남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 LG전자, Microsoft, Intel, Canon 등 글로벌 전자기업들이 베트남에 생산공장을 집적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결과로 각종 전화기 및 휴대전화 부품 등이 2013년부터 베트남의 수출품목 1위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글로벌 리더들의 이동으로 하위 벤더들의 현지시장진출 전망도 긍정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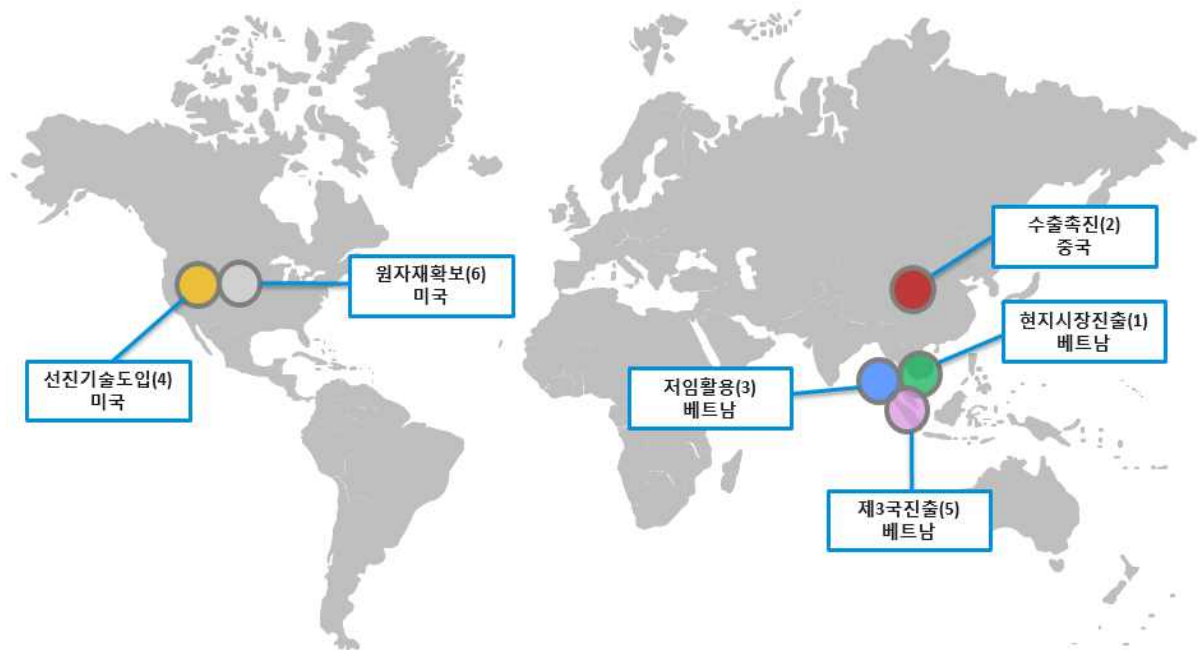
저임활용에 있어서도 베트남의 임금은 중국이나 태국의 50% 이하이고, 노동력이 풍부해 저비용 생산체제를 달성하기에 용이한 국가이다.

또한 제3국진출 측면에서 보더라도 TPP(Trans-Pacific Partnership), AEC(ASEAN Economic Community), FTA(Free Trade Agreement) 등으로 주요 시장과 연결돼 있어 베트남 내 생산제품이 무관세 또는 저관세로 미국·일본·유럽·아세안 국가 등으로 수출이 가능하다. 한편 베트남은 지리적으로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어 해운 운송에 적합하고,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중국시장 진출에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

제조업 투자의 패러다임 시프트, 뉴쇼어링(New-shoring)

전자부품 업종에서 선진기술도입 목적의 ODI는 전통적으로 미국으로의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다. 최근 국내 기업의 기술발달로 투자금액이 현저히 감소하는 추세이나, 2015년에만 8건의 신규투자가 발생하는 등 선진기술 측면에서 미국은 여전히 투자대상으로 주목해야 할 국가이다.

[그림 24] 전자 업종의 ODI 투자목적 우선순위와 투자목적별 적합지역



Source: 삼성KPMG 경제연구원
주: 괄호안의 숫자는 투자목적의 우선순위를 의미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의 뉴쇼어링 전략

“기계업종에서 투자 1순위는 여전히 중국, 그러나 자동차, 전자의 전방산업 이동에 따라 멕시코와 베트남을 주목해야”

기계 업종의 경우 저임활용, 보호무역타개의 ODI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현지시장진출을 위한 ODI가 대폭 증가하는 추세이다.

기계 산업에서 투자대상 1순위는 여전히 중국이다. 과거 저임활용, 보호무역타개를 위한 ODI의 주요국은 중국이었고, 여기서 감소된 투자액이 대부분 중국 현지시장진출 목적으로 바뀌어 중국에서 재투자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중국에서 2011년~2014년 기간 동안 약 7,000만 달러 수준에 머물렀던 현지시장진출 목적의 ODI가 2015년 1억 4,462 달러로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한편 중국과 함께 현지시장진출에서 주목에 해야 할 국가로는 브라질, 멕시코의 등 남미시장과 베트남을 들 수 있다.

제조업 투자의 패러다임 시프트, 뉴쇼어링(New-shoring)

기계업종의 전방산업인 자동차 업종의 멕시코로의 이동, 전자부품 업종의 베트남으로의 이동에 따라 후방산업인 기계장비 업종도 해당국가로의 이동 요인이 발생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Supply Chain의 집적이익에 편승할 수 있다.

베트남과 멕시코는 기계산업에서 저임활용 목적의 투자지역으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계 업종에서 저임활용목적 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던 중국에서의 효용이 사라지면서,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멕시코와 베트남이 부상하고 있다.

한편 과거 5년간의 추이와 다르게 2015년 기계산업에서 일본으로의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대부분 선진기술도입과 관련된 투자이다. 이는 새롭게 나타난 경향으로 중국이 기계장비 업종에서도 글로벌 시장점유율을 확장해 나가면서, 국내 기업들이 부가가치가 높은 설계 역량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그림 25] 기계 업종의 ODI 투자목적 우선순위와 투자목적별 적합지역



Source: 삼성KPMG 경제연구원
주: 괄호안의 숫자는 투자목적의 우선순위를 의미

제조업 투자의 패러다임 시프트, 뉴쇼어링(New-shoring)

1차 금속 제조업의 뉴쇼어링 전략

“ 1차 금속업종에서
현지시장 진출은 칠레,
수출촉진은 미국을 주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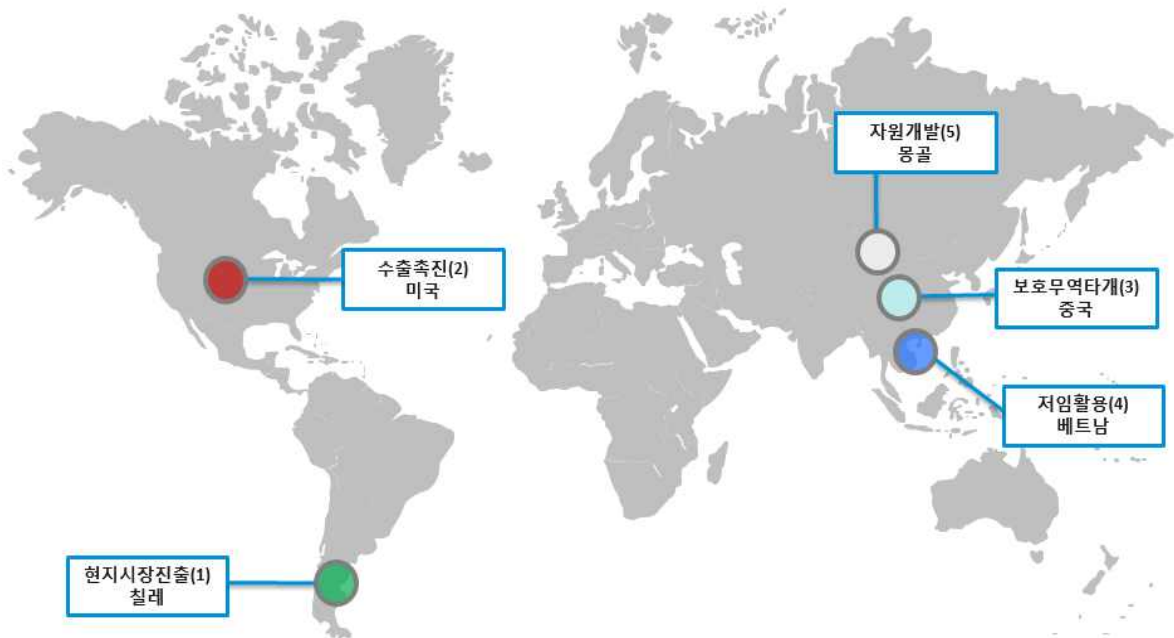
철강 업종을 필두로 한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인해 1차 금속 제조업의 투자지역 우선순위를 발굴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2011년과 비교할 때 2015년 1차 금속제조업의 ODI 투자금액은 1/4 수준으로 급감하였고, 1차 금속 제조기업들은 원가절감과 내부적인 구조조정 등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듯 1차 금속 제조업은 저임활용 목적의 투자비중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앞서 전체적인 투자비용이 감소한 전자업종도 저임활용 목적의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여전히 1차 금속 제조업에서 현지시장진출은 투자목적의 최우선 순위에 있지만 주요 투자 대상국이었던 중국, 인도, 미국으로의 투자금액이 대폭 축소되었다. 반면 최근 칠레가 현지시장진출 목적의 ODI 투자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칠레에서 2015년 8건의 현지시장진출 목적 ODI 신규투자가 발생하였고, 글로벌 철강 기업인 포스코가 금속 제련 플랜트 시장에 진출하였다. 따라서 연관 기업도 칠레의 시장상황과 금속 수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26] 1차 금속 업종의 ODI 투자목적 우선순위와 투자목적별 적합지역



Source: 삼성KPMG 경제연구원
주: 괄호안의 숫자는 투자목적의 우선순위를 의미

제조업 투자의 패러다임 시프트, 뉴쇼어링(New-shoring)

한편 중국의 철강산업은 정부의 계획과 보호아래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에는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특히 중국에서 공급과잉을 조절하기 위해 자국기업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 시장진입은 더욱 어려운 과제이다.

그러나 중국은 철강의 최대 생산지임과 동시에 최대 수요처이다. 특히 전방산업인 중국 자동차 시장의 수요를 고려할 때, 중국으로의 투자는 장기적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국내 소수의 기업이 중국의 보호무역타개를 위한 ODI를 늘려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

저임활용목적의 경우 타 업종과 유사하게 베트남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차 금속 제조업이 계속되는 불황을 견디기 위해 원가절감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는 저임활용 목적의 ODI가 증가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1차 금속 제조업에서 저임활용 목적의 베트남 투자는 극심한 불황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수출촉진목적 측면에서 보면 태국 현지 건설경기의 호황에 힘입어 태국으로의 ODI 투자금액이 매우 높았으나, 최근 태국정부가 내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철강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반덤핑관세 등 다양한 수입규제조치를 취하면서 투자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다. 반면 미국 경기회복에 기인한 철강수요 증가에 따라 미국으로의 진출은 다소 긍정적으로 전망된다. 대부분의 수출촉진목적의 투자가 감소하였으나, 최근 미국으로의 투자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뉴쇼어링의 이행

“ 뉴쇼어링의 이행을 위해서는 업종별 트렌드 분석과 함께, 진출국가의 시장·문화·제도와 진출 기업의 재무상황·원가구조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

글로벌 경기둔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기업이 마땅한 투자처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개별기업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제조기업의 업종별 투자목적의 변화와 그에 따른 적합투자지역 선정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했다.

본 고에서는 전반적인 업종별 트렌드의 변화를 설명하고 적합지역을 판단하였으나, 개별기업 입장에서의 뉴쇼어링은 보다 많은 변수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먼저 현지에 대한 시장상황과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해당 국가의 정책, 제도 및 규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개별기업의 재무상황, 원가구조 등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즉, 뉴쇼어링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서는 거시적 분석 뿐만 아니라, 개별기업과 진출국가에 대한 구체적 자료 조사 및 분석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이 요구된다.



삼성KPMG 경제연구원

김범석

원장

T: 02-2112-0770

E: edwardkim@kr.kpmg.com

이광열

상무이사

T: 02-2112-0062

E: kwangryeolyi@kr.kpmg.com

임두빈

책임연구원

T: 02-2112-7469

E: doobeenyim@kr.kpmg.com

이동은

선임연구원

T: 02-2112-7426

E: dongeonlee@kr.kpmg.com

엄이슬

연구원

T: 02-2112-3918

E: yeom@kr.kpmg.com

www.kr.kpmg.com

© 2016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u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